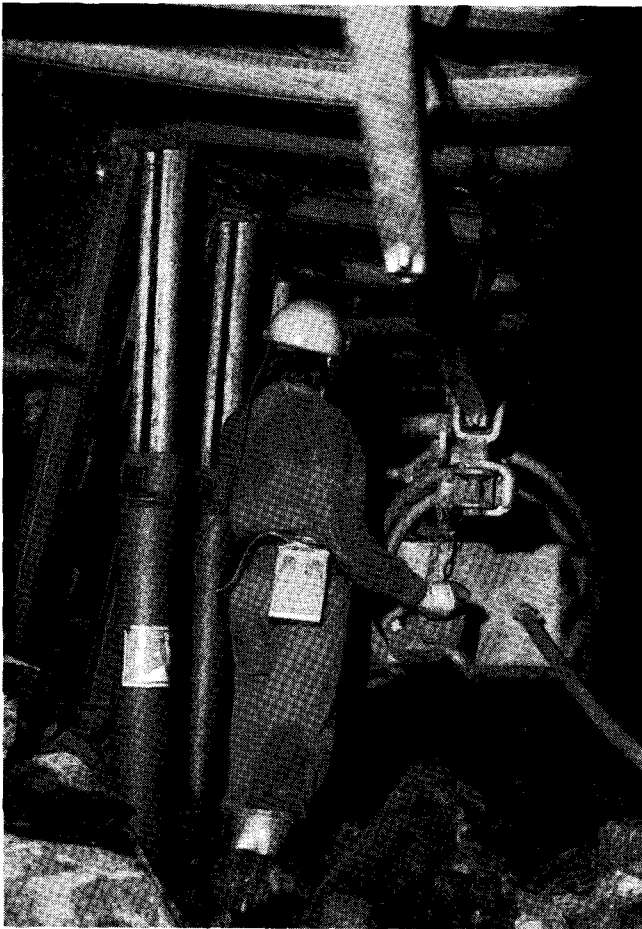


석탄, 수급균형을 이룬 가운데 가격은 소폭 상승할 듯



금년도 세계 석탄시장은 수급구조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가격도 전년 대비 톤당 약2~3달러 상승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탄은 지난 2년간 연속된 제철산업 활황이 점차 둔화되고 공급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세계석탄시장은 수급구조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가격도 전년대비 톤당 약 2~3달러 상승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탄은 지난 2년간 연속된 제철산업 활황이 점차 둔화되고 공급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탄의 경우 소비비중이 큰 발전 부문에서 아시아 및 남미지역의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연료탄 수출국의 공급전망을 보면 기존 수출국인 호주, 미국, 캐나다, 남아공이 전년수준보다는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고 단지 중국, 소련, 폴란드의 수출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신규수출국의 수출증대로 부족분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수급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정책이다. 특히 산성우와 같은 환경정책의 강화 또는 현상유지 여부가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각국은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환경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율이며 그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들 수 있다. 원료탄의 경우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 단지 제철산업의 호·불황에 의해 수요가 결정된다. 그러나 연료탄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타 연료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에 의해 경쟁력과 수요가 결정된다. 올해의 경제전망이

전년도에 비해 3% 내외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어서 총에너지 소비도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석탄의 소비비중의 현수준유지 여부인데 적어도 비중이 증대되지는 않더라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에너지성(DOE)의 전망에 의하면 1차에너지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21.2%에서 2000년 21.9%로 매년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 성장에 따라 석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유럽은 석탄수요가 경제성장률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지역의 석탄소비는 정부의 환경강화정책에 의해 매년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원전반대여론과 기타요인에 의한 가동정지, 한발로 인한 수력발전량의 감소때문에 대체발전원으로서 석탄화력발전량이 의외로 증가, 석탄소비비중이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일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아·태지역의 발전 부문에서의 석탄수요는 최근의 전력수요 급신장에 힘입어 올해에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지역은 원전반대여론 및 가스화력의 불투명한 경제성 때문에 석탄화력의 증설 또는 가동율증대의 원전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전 및 수전의 대체발전원으로서의 석탄화력의 역할은 가스화력과



의 경쟁관계에서 결정된다. 유럽, 미국의 경우 값싼 파이프라인가스의 대량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두부하용으로 가스발전이 선호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우 장거리수송(LNG 형태로 해상수송)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가스보다는 석탄이 선호된다. 동지역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의 경쟁력은 환경과 경제성에 입각한 연소기술의 개발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한편 공급측면을 보면 기존 주요수출국의 경우 석탄공급은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국, 소련, 폴란드의 생산감소 또는 내수 간선충족이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산권의 수출량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석탄수출량은 1) 미국의 탄광파업 진정 및 항만정비, 2) 호주의 신근로 기준법 정착에 따른 생산증

대, 3) 남아공의 항만하역시설 확충, 4) 비록 소규모이지만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등의 신규 석탄수출국의 수출증대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노사분규, 수송애로, 한발, 장마 등 산지 및 수송상의 문제로 현물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적도 있었으나 수요증가에 공급을 그런대로 맞출 수 있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탄광파업의 재발에 따른 공급압박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석탄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 결정되나 그외 타에너지원과의 경쟁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석탄가는 예전과 같이 유가의 움직임에 더 이상 연동되지 않는다. 석탄은 천연가스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특히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발전부문에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가스가격



이 발전부문 이외의 수요증대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 추세가 금년에도 지속된다면 연료탄 가격도 수급구조 외적인 가격상승요인을 지나게 된다. 독자적인 시장을 구가하는 원료탄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애 따른 제철업의 호황여부와 공급능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올해는 수급구조적으로 볼 때 가격상승은 작년대비 톤당 2~4달러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석탄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은 원전정책과 산성우정책 그리고 석탄연소기술 R & D정책의 강화여부이다. 연초 통과가 예상되는 미국의 산성우법안에 의하면 저유황 발전용탄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유사한 법안이 서유럽에서 실시중이기 때문에 고유황탄의 수요감퇴와 함께 저유황탄이 고유황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은 올해 저유황탄의 수입증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수출시장에 공급과잉이 된 고유황탄의 활용을 위해 석탄무공해연소기술(Clean Coal Technology) 시범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영국, 서독, 프랑스는 CCT발전소를 가동중이다. 미국은 DOE를 중심으로 개발된 CCT기술을 석탄과 병행수출하는 석탄패키지 수출을 통하여 대개도국 석탄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타, 석탄수출시장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1) 새로운 석탄거래방식으로서 SCSDS(Spot Coal Screen Dealing System)의 성공적 정착여부, 2) 석탄산업에서의 매수·합병 가속화이다. 작년 4월 개시된 SCSDS는 그 성공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성공시 국제석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품의 미

규격화, 현물시장의 미성숙 등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메이저, 일본의 대수요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매수·합병은 올해에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의 대형제철소 및 발전소는 단독 또는 콘소시엄을 형성, 호주, 캐나다 탄광의 매수·합병과 미국서부탄의 합작개발, 수송사업 등 석탄산업의 계열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EXXON, SHELL 등 유수의 메이저들의 석탄산업 침투는 보유석유매장량이 감소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및 메이저의 석탄산업 계열화 현상이 올해에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1990년 석탄시장은 1) 아·태시장에서의 발전 및 제철부문에서의 수요증가, 2) 영국, 프랑스, 서독의 환경 및 원전정책의 향방, 3) 공산권의 석탄수출 감소, 4) 미국의 산성우정책, 5) 호주의 노조활동, 6) 석탄, 가스와의 경쟁심화 등의 불투명한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가 수출확대정책을 펴고 있어서 만일의 공급압박상태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수출국인 호주와 미국 남아공이 상당량의 수출확대가 예상되어 공산권의 수출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물론 세계경제가 예상한 바대로 평균수준의 성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